

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18년 01월 15일 발행(192호)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nadokorea.co.kr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안경사 구인구직

모바일 **APP** 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나도코리아'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무료로
안경사 구인구직을 이용하세요!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EL. 053.353.9992 FAX 053.351.4063

03 ISSUE

정부에서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발표한 이후 대한협이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해 회원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06 NEWS IN NEWS

지난해 말 전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7월 1일까지 유예되고 일부 품목은 인증 의무가 사라졌다.

04 FOCUS

안광학산업진흥원의 프레폼렌즈 생산장비 구축에 제조업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사업비의 과다전용 시비가 일고 있다.

ACUVUE®
BRAND CONTACT LENSES

긴 하루,
편안하고
선명하게

눈물을 닦은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마이아큐브®로 경험해보세요



렌즈매니저 2018.01 메이러브 라인업 출/시/예/정

COMFORTABLE FOR A MONTH

MAY LUV

메이러브 클리어 실리콘 하이드로겔
1-month/ 1pack 2pcs



MAD ABOUT YOU

MAY LUV 3 CON

메이러브 3 CON 실리콘 하이드로겔 1-month/ 1pack 2pcs



Mad about you

MAY LUV

메이러브 데일리
1-month/ 1pack 2pcs



메이러브는 (주)안경매니저에서 새롭게 런칭한 콘택트렌즈 전문샵 렌즈매니저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렌즈매니저
가맹 상담중

(주)안경매니저
가맹 안내·문의

가맹 조건

구분	가맹비	월관리비
안경매니저	500만원	30만원
씨채널안경	500만원	20만원 원부 상권 별도 책정
아 이 피 아	1000만원	30만원

※일부 지역 제외

가맹상담 및
상권분석

총괄	이재형	본부장	010-9670-6666
서울 · 경기북부 · 충북	서영태	팀장	010-9364-1739
인천 · 강원 · 경기남부 · 충남	이준영	팀장	010-9424-5438
전남 · 전북	노용선	팀장	010-3092-9239
대전 · 경상도	노장호	팀장	010-9976-5058

NAVER

You Tube

facebook

각 검색창에 안경매니저를 검색하시면
UX컨텐츠 영상과 이벤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아이



안경매니저



씨채널안경



ASAHI 1.67 / 1.74 양면바구면 UV 퍼펙트 출세!



안경렌즈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시력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
아사히 누진다초점렌즈가 거대 안경원을 신나게 만듭니다.

아이미광학 T.02.774.4477 F.02.753.9262

쉬쉬하다 사태 키운 협회... 뒤처리도 능력

대안협,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허용 11월 이전에 파악... 협회 11월 상임이사회서 '잘 막았다' 보고→ 정부는 한 달 뒤 발표

정부, 7월에 도수 범위 발표 예상
협회, 정기이사회서 대책위 구성
회원, 팩렌즈의 인터넷 판매 걱정

(사)대한안경사협회 집행부가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11월 협회 상임이사회 회의석상에서 김영필 회장이 '정부에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개방하려는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설명한 것이 확인된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8일 저도수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를 금년 8월부터 허용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사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대안협 집행부는 이미 11월 이전에 정부에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논의한 사실을 인지했고, 이어 지난 11월 23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김영필 회장이 '근용안경 등의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28일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협회 집행부가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라는 엄청난 사태를 인지한 즉시 공문화해 모든 수단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실을 쉬쉬하며 감춤으로써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안경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를 사전에 인지한 협회 집행부가 우물쭈물 허둥대며 사태를 키웠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 일각에서는 안경원의 9가지 장비를 잃어버린 핵심 당사자들이 또 다시 회원 안경사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와 불편한 관계로 유예는 힘들 듯

지난 1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결의한 안경사 관련 내용은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올해 8월부터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조정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돌보기안경 중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돌보기안경 시장에 온·오프라인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제품 가격하락 및 다양한 제품 선택 등 소비자 편익의 증진을 위한다는 것이 조정위원들의 개정 이유다.



▲ 작년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모습.

현재 국무총리실은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8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 해석을 용역 의뢰해 제도 시행 이전에 저도수의 범위와 의료기사법 내의 안경사 업무범위 등을 개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 일각에서는 근용안경이 인터넷 판매가 현실화되면 곧이어 팩렌즈, 고

도수 안경 등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될 공산이 크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개인의 콘택트렌즈 해외직구를 허용한 것과 팩렌즈의 인터넷 판매가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더구나 안경사들은 문제인 정권이 출범 초기라는 점에

서 각종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경사들의 희망대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 또는 유예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이번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허용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면서 1989년에 의료기사법 내에 포함된 일명 안경사제도는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은 특히 대안협과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관계가 예전처럼 원만하지 않고, 회원 안경사들의 단결력도 1989년도의 쫓기대회 때보다 많이 약화된 때문이다.

지금 국내 안경사들은 안경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사태가 터져도 긴급회의조차 열지 않는 대안협 집행부, 사태 발생 8일 만인 지난 5일 시무식에서 뒤늦게 1월 정기이사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대안협 집행부의 능력 대응에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협동취재반

복지부 가끔 찾는다는 집행부... 실재론 '0'

협회 수뇌부, 지난해 복지부 방문 건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근용안경 인터넷 허용 발표에도 대응 활동 미미

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한다는 협회 주장은 거짓말

본지에서 복지부 방문한 화수 질의에 협회 무응답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정부에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대안협 임원이 복지부를 찾아온 사례가 없고, 작년 말 내지 올해 초 협회 사무총장이 우리 부를 방문해 사무관, 주무관 등과 면담한 것이 유일하다"며 "안경사 관련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부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 1년간 협회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등이 복지부를 방문한 것은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협의 핵심 관계자들이 입버릇처럼 '가끔 복지부를 방문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대안협이 '각종 현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은 입으로만 일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의 대안협 집행부라면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후속대책으로 진행되는 연구용역, 즉 협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여부를 확정하는 복지부를 '필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복지부에 확인했다시피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다.

중앙회의 한 상임이사는 "지난 1월초 진행된 시무식에서 김영필 회장과 수뇌부들이 '제대로 막고 있으니 걱정마라'고 호언장담했다"며 "하지만 협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지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아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권의 한 대의원은 "아무리 협회장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회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터넷 판매를 막는 것보다 중요할 수 없다"며 "지난 3년간 스스로 실적이 없다며 협회장을 불신임한 무능한 현 집행부가 결국 큰 일을 저질러 역대 최악의 집행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본지는 대안협에 '지난해 대안협 집행부 임원들이 복지부를 방문한 횟수를 알려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대안협은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대의원에 '복지부와 긴밀히 협조' 문자 발송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협회 수뇌부의 복지부 방문은

진흥원의 프리폼 구축사업… 눈먼 세금 ‘줄줄’

기존 안경렌즈업체보다 3배 많은 약 35억 장비 구축비 집행… 정부는 사업성 없는 프리폼사업에 총 100억 지원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진흥원)에서 도입 구축한 프리폼렌즈 장비사업에 안경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업계에 나도는 비난은 수없이 많다. ‘진흥원의 프리폼 구축사업은 방산 비리의 축소판’이라고는 비난부터 ‘프리폼 비전문가인 진흥원이 관련업체도 모르게 장비를 수입했다’ ‘아무리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해도 프리폼 구축 사업에 40여억, 3년간의 운영비로 60억원 등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니 산자부나 대구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진흥원 프리폼 장비사업은 이제까지 장비를 구입했던 것처럼 냄새가 진동한다’ 등 비난 일색이다.

2개 회사서 구입해 기기 호환성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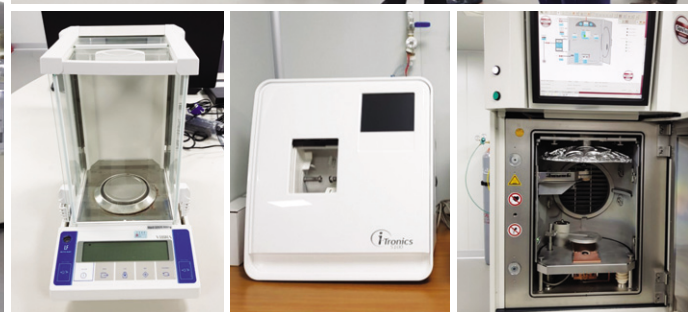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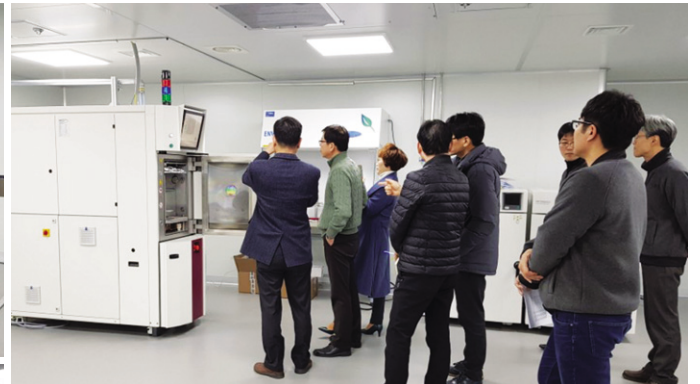
안경렌즈 제조업체들의 비난 수위는 더 높다. 이들은 ‘최대 10~15억이면 충분한 프리폼렌즈 장비 구축에 진흥원은 2배가 넘는 30억이 넘게 세금을 평평 썼다’ ‘프리폼 장비는 전 세계의 3개 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해 수입하는 것이 상식인데, 진흥원은 터무니없이 2개 회사에서 수입해 기기들이 서로 호환도 안 되고, 또 기기를 서로 호환하려면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상식 이하의 일을 저질렀다’ ‘30억 넘게 자금을 집행하고도 메인 프로그램을 또 구입해야 렌즈를 생산하는 기막힌 일을 벌였다’ ‘국내 렌즈업체 한 곳에게만 물어봐도 공짜로 가르쳐줄텐데 프리폼과 상관없는 컨설팅 업체에 2억원이라는 컨설팅비로 지불하고, 더 기막힌 것은 이 컨설팅회사는 서로 호환도 되지 않는 기기를 컨설팅했다’ ‘세계에서 프리폼 기기를 만드는 3회사 모두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 있는데, 진흥원은 한국지사를 외면한 채 외국에 직접 나가서 장비를 수입하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냄새나는 짓을 했다’ ‘국내 안경렌즈 제조업체들이 8년 전부터 프리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데, 진흥원이 엉뚱하게 프리폼을 연구하고 기술 개발해 업체에 조언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명분을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역의 안경테 생산업체들도 진흥원의 프리폼 장비 구축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대구지역 일각에서는 ‘지난 14년간 진흥원이 수없이 세금을 써대며 구축한 장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프리폼이라는 큰 건을 제대로 올렸다’ ‘프리폼을 생산해도 판매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업에 정부는 앞으로 3년간 60여억을 더 지원한다니 이건 나라 전체가 엉망이다. 또 잘못된 사업임을 알면서도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행정은 씩었다’ ‘진흥원에서 프리폼 사업을 기획 추진한 관계자, 또 이를 결재한 정부쪽 인사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등 갖가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향후 3년간 프리폼에 60억 추가 지원

진흥원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안경렌즈 소재 가공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은 2015년에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일명 프리폼렌즈 사업은 1차년도(2015) 7억원, 2차년도(2016) 18억원, 3차년도(2017) 6억원 등 총 31억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5층에 마련된 프리폼렌즈 관련장비의 모습.

실익 없는 사업에 세금 낭비 렌즈업체, 사업 재검토 주장

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지원되고, 향후 3년간 운영비 명목으로 60여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난 12월초 국내 안경렌즈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진흥원 프리폼렌즈 설비와 관련한 긴급모임을 가졌다. 정부 지원금으로 프리폼 장비를 구축한 진흥원에서 일선 안경원에 프리폼렌즈를 판매할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돌면서 안경렌즈 업체들이 긴급모임을 가진 것이다.

이날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진흥원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프리폼렌즈 기기를 구축

· 생산해 안경원에 판매하려는 의도를 강력 비난하고 ‘진흥원의 프리폼 구축사업은 나랏돈을 받아서 안경렌즈 생산업체를 죽이는 기절초풍할 정책, 기존 제조업체의 판매활동을 위축시키는 파렴치한 사업’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안경렌즈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진흥원이 앞으로 정부로부터 3년간 지원금을 받아 생산된 프리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진흥원, ‘프리폼은 연구용’ 對 렌즈업체, ‘생산시설’ 의견 팽팽

프리폼 기술 전문인 진흥원서 기술개발과 연구 주장에 8년 노하우 축적한 업체들 헛웃음



▲ 지난 2017년 12월 27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안경렌즈 제조업체와 진흥원의 간담회 모습. 이날 진흥원 (좌측)은 프리폼렌즈 구축사업은 ‘판매가 아닌 연구개발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안경렌즈 제조업체 7개사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지난 27일 안경업계에 떠도는 소문의 진위를 설명하고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진흥원 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 진흥원은 업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업체 관계자들이 제기한 ‘프리폼 설비를 구축한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진흥원은 이 자리에서 ▶진흥원 프리폼 장비는 판매가 아닌 연구개발이 목적이어서 내수판매를 하지 않고 ▶프리폼 장비는 업체에 위탁생산 또는 임대 불가하며 ▶정부지원 사업 종료 후 구축된 설비는 업체에 주고 판매가 아닌 타 국책기관으로 이전된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이날 “진흥원은 조직 구성상 일체의 판매 행

위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우리 진흥원이 프리폼렌즈 설비를 구축한 것은 프리폼 기술 개발을 통해 특정 환자의 교정과 난치성 질환치료 등 학술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진흥원의 주장에 싸늘한 반응이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진흥원이 간담회에 기초자료 한 장도 준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업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현 원장은 ‘프리폼 장비사업은 전임자가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은 그 뒤처리에 곤욕을 겪고 있다’고 말해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진흥원은 프리폼 장비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구축했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진흥원 장비는 모두 프리폼렌즈를 생산하

는 설비”라고 지적했다. 진흥원이 설치한 렌즈가공기, 검사기, 편심측정기 등은 프리폼렌즈 생산 설비로 연구 장비는 전혀 없다는 것이 제조업체 측 주장이다.

더구나 전문 제조업체들은 진흥원이 프리폼 연구를 통해 특정 환자의 교정과 난치성 질환치료하겠다는 주장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업체들이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프리폼 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특정 환자의 교정을 프리폼 노하우가 전혀 없는 진흥원이 거짓 주장만 앞세운다고 주장하며 협의체 구성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진흥원의 프리폼 장비를 살펴본 렌즈업체 관계자들은 진흥원의 프리폼 사업은 국고 예산 낭비사업, 프리폼 비리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최첨단 기술력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하다

OPTOS
GERMANY TECHNOLOGY

더욱 더 편안한 개인별 완전 맞춤형
프리폼 양면 비구면 렌즈



- 독일 GF공법으로 넓고 편안한 시야 확보
- 개인별 완전맞춤형 렌즈 : 개인별 생체학적 특성과 착용습관까지 고려한 제작
- 안구의 회선 각도에 따른 설계 및 특수 최적화 설계 적용

- 슈퍼하드 멀티코팅으로 업그레이드된 내구성
- 무게와 두께감 40% 이상 감소(기존 자사 일반렌즈 대비 약 40%)
- 싱글비전, 누진다초점렌즈, 기능성렌즈(변색렌즈 가능)

Technical joint with GERMANY

OPTOS LENS

협회, 사전 선거운동·규칙 개정

현 집행부에 유리하게 규칙 해석... 황인행 수석은 사전 선거운동

대한안경사협회(대한협)가 협회장과 지부 회장 선거가 임박한 지난 1월 3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시도지부 선거관리 시행 지침'이라는 공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협회 집행부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는 정관의 하위 규정인 '시행 규칙과 규정'을 이용해

임원 선출 시행 지침을 갑자기 발송한 것이다. 이에 전국의 여러 지부는 협회가 어느 특정 후보의 회장 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일단 전국 시도안경사회에 발송한 '시도지부 선거관리 시행 지침' 중 제4조(임원자격) 4호 「임원이 되려는 자(선출, 선임 포함)는 선거일 현재 안경원을 연속하여 5년 이상 후보자 개인단독의 명의로 안경원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중략)」를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



▲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2017년 5월 제6차 정기이사회.

지만 처음 의도에 많은 회원들이 불쾌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앙회 수석부회장이며, 차기 20대 협회장에 출마를 확정한 황인행 수석은 자신의 명의로 전국 대의원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며 사전 선거 운동함으로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을 보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옆면은 선거기간이 아닌 지난 12월 연말에 20대 회장에 출마한 황인행 수석부회장이 전국 대의원에 카카오톡으로 보낸 문자이다.

황인행 수석부회장 사전선거 문자

(카카오톡 발신일 2017년 12월 말경)

안녕하십니까? 대의원 여러분. 신문에 보도된 '시력보정용 안경 인터넷 규제완화'는 잘못 보도된 내용이며, 지난 2011년 11월 모든 도수용 안경의 인터넷판매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매년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안경사협회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긴밀한 협조 속에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분은 돈보기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인터넷 판매는 절대 불가하다는게 협회의 생각이며, 절대 허용되지 않도록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주요국 광학전 일정



▲ 2017 SILMO

- ▶ MIOF _ 2월 14일~16일 _ 러시아 모스크바
- ▶ MIDO _ 2월 24일~26일 _ 이태리 밀라노
- ▶ SIOF _ 3월 5일~7일 _ 중국 상하이
- ▶ OPTA _ 3월 9일~11일 _ 체코 브르노
- ▶ Vision Expo-East _ 3월 16일~18일 _ 미국 뉴욕
- ▶ INOPTICS _ 4월 7일~9일 _ 인도 뉴델리
- ▶ Optrafair _ 4월 14일~16일 _ 영국 버밍햄
- ▶ DIOPS _ 4월 18일~20일 _ 대한민국 대구
- ▶ WOF _ 5월 5일~7일 _ 중국 원저우
- ▶ CIOF _ 9월 10일~12일 _ 중국 베이징
- ▶ Vision Expo-West _ 9월 27일~29일 _ 미국 라스베이거스
- ▶ SILMO _ 9월 28일~10월 1일 _ 프랑스 파리
- ▶ iOFT _ 10월 22일~24일 _ 일본 도쿄
- ▶ Vision-X _ 미정 _ 두바이
- ▶ H.K. Optical Fair _ 미정 _ 홍콩

급한 불 잡은 안경류 KC 인증제

일부품목 KC 인증의무 면제와 6개월 유예하는 전안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의 극적 통과



▲ 전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간 유예되었다. 사진은 12월 29일 본회의 모습.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안법 개정안은 부칙에 의해 29일부터 6개월 유예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월간 KC 인증 제외 대상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해부터 소상공인 수백만 명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가깝스로 모면했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위해성이 적은 일부 상품의 KC 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의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KC마크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특례조항을 포함시켜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이 신설되고,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리체계'는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됐다. 이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로 KC인증 부담은 다소 벗어났지

만, 소비자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임이 해당 제품의 최종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안경원 원장은 "결국 안경 제조상의 문제도 판매자인 안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판매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개정을 주장했다.

전안법의 입법 취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구분하던 법령을 통합한 법률로서 올해 1월부터 안경, 가족, 원단 등 제품의 소재도 일일이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전안법 시행을 극력 반대하는 이유는 건당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 때문이다. 더구나 전안법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유는 해외 쇼핑 사이트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생산 유통업체들은 일단 전안법이 다소 완화되고 6개월간 유예되었다는 것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새로운 전안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는 전안법이 본래의 취지와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누진렌즈' 가격파괴 확산

인천 모 안경원이 40% 세일 행사... 해당 업체들은 실질적 조치 약속

마포 P안경원 이후 전국 확산 유명업체 회사명 표기해 판매

'안경사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불리는 누진다초점렌즈의 할인경쟁이 점차 노골화되면서 일선 안경사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의 모 안경원에서 제기되어 물의를 일으킨 누진렌즈의 할인경쟁이 U안경체인을 시작으로 안경원의 대표적인 과당경쟁의 아이템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천의 모 안경원이 지난 12월부터 '패밀리 세일 누진다초점렌즈 전품목 40%'란 광고판을 내걸어 주위의 안경사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 광고판에는 무엇보다 외국 유명 안경렌즈업체인 'E社, H社, Z社' 등의 회사명이 표시되어 큰 반향을 사고 있다.

최근 안경사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안경원 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다른 안경원은 이보다 더한 할인율로 세일하면서 고작 40%에 불과한 할인판매에 발끈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우리를 자꾸 몰아세우면 아예 6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누진렌즈 가격파괴 행사에 거론되고 있는 안경렌즈 3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즉각적으로 제품 공급 중단 또는 회수를 약속했다. H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사는 해당 안경원에 광고판을 제거하라고 요청했으며, 일부 안경원의 이같은 가격파괴 행사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품 공급 중단 등 제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Z사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해당 안경원은 자사와 거래가



없는 안경원으로 최근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상표권 위반 고지와 회사명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예전에 인천에서 분회장을 역임했던 한 안경사는 "해당 안경원은 오픈 당시 D社の 명품 선글라스를 평균 72% 할인 표시한 전단지들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킨 곳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안경사의 마지막 보루인 누진렌즈의 가치 손상을 막기 위해 해당 업체를 철저히 고발해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 강동구에 소재하고 중앙회 부회장이 운영하는 안경원은 전면 유리창에 '특가, 누진다초점안경 50%'라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주위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앤365

프리미엄 콘택트렌즈

www.ann365.com

ANN
365
CONTACTLENS

프렌즈샵

상담문의

010-8589-1652

문희태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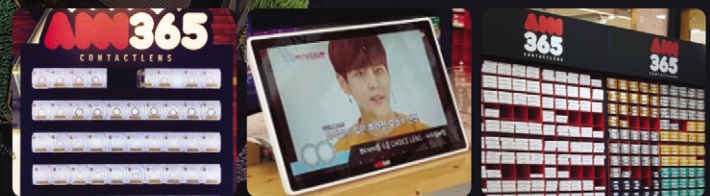
콘택트렌즈 프랜차이즈 말고

프렌즈샵!



프렌즈샵 #앱

이벤트, 매장안내 및 길찾기



프렌즈샵 #디스플레이

렌즈샘플판 및 터치스크린, 진열장...

社説

안경사 망치는 협회의 안이한 자세

미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말이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었다.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설문에서 1위는 ‘I am Sorry-미안하다’였다. 조그비 인터내셔널이 조사한 이 설문 결과에는 또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가 연간 2만5천 달러의 저소득자보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2배나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보다 상대에게 먼저 미안해 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인 것이다.

세계 최대의 전기 소비재 생산업체인 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은 좋은 리더의 특성으로 리더가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 조직은 시련을 보다 쉽게 극복한다고 말했다. 이멜트 회장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강한 승부욕,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 바른 인식에서 나오는 자신감, 비난에 대한 회복력, 변화에 대한 당당한 태도,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책임을 꼽았다.

축구경기도 도움(어시스트)을 주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비록 골을 넣지 못했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득점자에게 마지막으로 패스한 선수의 도움을 공격 포인트로 간주하고 있다.

소방관이 산불을 잡을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다. 소방관들은 산불을 잡을 때 초기 진화나 잔불 정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의 낙엽이나 잔가지들 미리 걷어내 불길을 차단한다. 어떤 때는 오히려 반대편에 맞불을 놓아 불길을 잡기도 한다.

안경사협회는 그동안 회원들에게 시

시각각 번져오는 불길을 어떻게 진화시켜 왔는지 의문이다. 시대가 격변하고 소비 성향이 바뀔 때 협회가 초기 진화는 어떻게 했으며, 또 선글라스와 안경테가 안경사 손을 벗어나고, 안경원 최대 고객층인 젊은 여성 고객들이 라식라섹수술 광풍에 휩쓸릴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쥐락펴락하는 보건복지부와 안경사단독법 추진 이후 물과 기름처럼 겹도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묻고 싶다.

안경원의 9가지 장비를 삭제한 곳은 다른 곳도 아닌 복지부다. 또 무면허자의 안경원 근무도 적법하다고 해석한 곳도 복지부다. 최근에는 협회와 복지부의 관계가 얼마나 나쁜지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안경사를 가장 지켜주어야 할 복지부에서 안경사의 목을 서슴없이 죄어오는 것이다.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복지부와 관계없다고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아무리 힘있는 국무총리실이라도 안경사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과 협조 없이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행부의 어느 임원은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면피용 변명만 늘어놓고 차기 회장 선거에 표를 구걸하고 있다.

어쩌면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사태를 축소하는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다름없다. /본지 허선

世評

안경문화 (1)

흔히 문화를 정신적인 지적인 발전으로, 문명을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란 인류의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를 말하기도 한다. 나중엔 교양, 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문화적 규범에 대한 까다로움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덕목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성의 있는 설명을 하려 노력했다. 그러니까 악장 사이에 박수를 금지시킨 규율은 1922년 36세의 젊은 나이에 베를린 필하모니의 상임지휘자에 오른 푸르트벵글러가 ‘다악장의 음악에 있어서 각 악장 간에는 유기적인 연관이 있다. 악장마다 다른 별개의 음악이 아니다’ 해서 금지시킨 것으로 대 지휘자의 주장이 오늘날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연주 중간에 치는 박수는 음악의 흐름을 끊어 놓을 뿐 아무 영양가가 없다는 뜻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응, 그래서 그렇구나’하는 표정을 지었다.

문화가 일단 질서요 조직이요 도그마라고 가정해 보면 야단법석의 판국은 부정적인 문화기호로서만 값이 매겨질 소지를 안고 있다. 문화를 평화스럽게만 보면 분석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은폐하게 된다. 전통사회의 연대가 해체되면서 이해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조직 원리가 등장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혼잡, 불평등, 정체성의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국제화란 개방화, 정보화, 선진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국제화란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가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에 적응해 갈 의식의 개조,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왜소성, 움츠름성, 협애성, 배타성,

분리성 따위가 국경 없는 시대에 통할 리 없다. 탈반도 초국경성과 융화력을 강화해야 우물 안 개구리 신세와 웅덩이 속 미꾸라지 신세를 면할 수가 있다. 지역성, 분리성, 배타성을 누르고 통합성과 응집성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연대성도 함께 해야 한다.

모든 문화현상에는 공통된 가치기준과 방법론이 엄존하는 경우를 곧잘 볼 수 있다. 이 정신요소를 여기서는 범 패러다임이라 부르기로 한다. 굳이 형식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범 패러다임은 문화의 세상에 공통된 가치관 혹은 지배원리와 그것에 의해 추진되는 문화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라 불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어떤 문화든 종교, 과학, 예술 등의 모든 정신활동을 포함한 것이며, 이중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문화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문화에 대해 한 마디를 덧붙인다면 청춘의 거짓된 날을 넘어 이제는 진실 속으로 어울려 들 각오를 피력하는데, 젊은 날에는 들뜬 이파리의 요절과 뒤틀린 결가지들의 허세로 진실의 뿌리를 보지 못했다. 멧은 흥취나 초연함이고 한(恨)은 체관인 것이다. 우리 문화의 축제는 뽕내고 즐기지만 할 것이 아니라 심미적 감정을 기초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널리 베풀고 건지자는 구상(具常) 시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암 문운서(본지 편집위원)

Ddum

옵틱위클리



DAUM에서 옵틱위클리 뉴스검색하세요

Duso

glasses / sunglasses / lens / contact lens / franchise



트랜지션스 고객감사 앵콜이벤트

안경사 골드바 & 해외여행 이벤트

2017년 고객님의 성원에 힘입어
2018년 골드바 이벤트 쭉-욱 계속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트랜지션스 전속모델 차승원



지금 **변색렌즈 트랜지션스®** 를 검색하세요!

2018 에실로 트랜지션스® 골드바 & 해외여행 프로모션

나는 변색렌즈 트랜지션스를 쓴다!

이벤트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골드바 이벤트

*발표: 매달 익일 10일에 선정 및 개별 연락

1등상 | 매월 트랜지션스 매출 1위 안경원을 선정하여 **순금 5돈을 증정**해드립니다. (중복 수상 불가)

2등상 | 매월 트랜지션스 매출 2위 안경원을 선정하여 **순금 3돈을 증정**해드립니다. (중복 수상 불가, 단 2등상 수상 안경원은 1등상 수상 가능)

특별상 | 매월 트랜지션스 단초점렌즈 판매 1위 안경원을 선정하여 **순금 1돈을 증정**해드립니다.

(중복 수상 불가, 단 특별상 수상 안경원은 1등상, 2등상 수상 가능)

해외여행 이벤트

*발표: 2019년 1월 중순에 선정 및 개별 연락

2018년 트랜지션스 최다 매출 1위 안경원을 선정하여 **여행상품권 200만원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영업사원 또는 에실로 코리아 고객센터 (1600-81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이벤트 'GO! GO!'

광고 유튜버서 26만여 건 조회 기념해 스타벅스 이벤트 연장 실시

(주)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대표 김희경, J&J)의 프리미엄 일일착용 콘택트렌즈 ACUVUE oasys의 소셜미디어 영향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J&J에서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의 장점을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긴 하루 내내 편안하고 선명한' 광고 영상물을 제작 공개했는데 특히 신입기자로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 형식의 90초 광고가 유튜브에서 약 26만 건, 페이스북에서 약 8천 건의 조회 수를 보이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배우 김윤희 씨를 모델로 발탁해 큰 효과를 얻고 있는 J&J는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답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아큐브 모바일 멤버십 앱 '마이아큐브'를 통해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30팩 또는 90

팩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한 팩 당 한 개의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증정하고 있다.

고객 1인당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 J&J 마케팅팀의 채유경 이사는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는 하루 종일 착용해도 선명하고 편안해 직장인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사는 소비자들께서 공감하는 콘텐츠로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해 안정업체와 소비자들께서 소통하는 행사를 많이 가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080-023-0202



안경매니저, 콘택트 솜인솜 사업 진출

1월부터 콘택트렌즈 삽인샵 '렌즈매니저' 가맹 개사...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승부



(주)안경매니저(대표 김재목)가 2018년 새해를 맞아 콘택트렌즈 단독샵 및 삽인샵인 'LENS MANAGER'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그동안 콘택트렌즈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난 1일부터 렌즈매니저 가맹사업에 본격 나선 것이다.

안경매니저에서 새롭게 선보인 콘택트렌즈 전문점 '렌즈매니저'는 '너에게(사랑에) 빠지다-Mad About You, MAY LUV'라는 슬로건으로 그동안 초일류 안경 프랜차이즈로 발돋움한 안경매니저의 자신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콘택트 전문 체인이다. 특히 렌즈매니저는 소비자의 니즈를 철저히 반영해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맹비와 관리비를 매우 착하게 책정하는

등 안경사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이 특징이다.

안경매니저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안경시장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없을 정도로 각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자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중의 기호와 젊은 고객들의 트렌드에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콘택트렌즈의 상품 구비도 차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콘택트렌즈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된 PB 콘택트렌즈 출시는 물론 기존 스타일과 다른 콘택트렌즈 전문샵의 표준모델을 개발해 왔다"고 밝히고 "렌즈매니저는 고객의 컬러 트렌드에 맞는 특화된 PB상품 'MAY LUV' 브랜드를 첫 메인상품으로 출시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042)523-7741

'앤365앱'은 소비자와 체인샵 잇는 열쇠

쿠폰 증정·다양한 즐길 거리와 정보 제공... 콘택트 이용자의 필수 앱으로 부상



앤365(대표 최성흠)의 콘택트렌즈 삽인샵 '앤365프렌즈샵'이 지난해 말에 선보인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현재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12월 초 출시된 앤365앱이 현재까지 다운로드 6만 회를 돌파하며 삽인샵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앤365앱에는 매달 사용 가능한 쿠폰과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렌즈의 가격정보 등이 담겨 있어 콘택트렌즈 이용자들의 필수 앱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더구나 앤365앱의 하단에 표시된 '프렌즈

샵'을 누르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앤365프렌즈샵을 찾도록 꾸며져 소비자와 안경원을 서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안경사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앤365앱의 인기와 함께 프렌즈샵의 선호도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며 "자사가 전개하는 온라인 프로모션과 쿠폰은 프렌즈샵에서 사용이 가능해 앱을 통해 앤365를 접한 고객은 프렌즈샵을 방문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02)841-9009

케미렌즈 "매직폼 모바일" 출시 기념 이벤트 케미 원정대 모집

대한민국 안경원 대상, 베트남 공장 견학 및 테마여행

이벤트 품목 매직폼 전품목 MAGIC FORM SERIES MAGIC FORM MOBILE

이벤트 기간 2017년 12월 1일 ~ 2018년 2월 28일(3개월간)

응 모 방 식



케미렌즈 홈페이지
이벤트 응모코너 참여



봉투뒷면 제조일자, 제조번호,
거래처 및 개인정보입력



2018년 3월 초 발표
(개별통보)



자~베트남으로 떠나자!
2018년 4월 17일~20일

일 정 안 내

발표 | 2018년 3월 초, 30명 추첨(개별통보) ※ 이벤트기간은 주문일 기준으로 적용

출발 | 2018년 4월 17일(화) ~ 20일(금)

카카오톡에서 케미렌즈를 친구 추가하고
이벤트와 제품정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TALK

www.chemilens.co.kr

엄동설한 매출... 착한 가격으로 大승부!

타이거 인터내셔널, '서지오 아르마니' 울템 이어 150여 메탈데 곧 런칭... 대규모 신제품 대박 판매 단행!



SERGIO ARMANI

국내 안경시장에서 울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는 2018년 S/S 시즌인 지금도 여전히 뜨겁다. 작년부터 아이웨어의 트렌드가 기존 플라스틱에서 메탈데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10년 이상 시장을 지배했던 플라스틱의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 못할 수준이다.

그 한가운데 SERGIO ARMANI를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타이거 인터내셔널. 고품격 울템을 원하는 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며 가격까지 무진장 착한 '서지오 아르마니'는 지난해 말에 최초로 5종류의 컬렉션이 선보인 후 곧이어 150종의 메탈 라인을 출시해 안경사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격·디자인·퀄리티 3대 절대만족

폴리에테르이미드(polyether imide)는 미국의 GE사가 개발한 새로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지난 1983년 울템(ULTEM)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판한 이 소재는 가벼운 착용감과 탄성, 복원력 그리고 놀라운 내구성 등으로 안경로는 최고의 소재로 평가 받으며 아세테이트, TR 등과 함께 '플라스틱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현재 '서지오 아르마니'는 국내 최저가의 울템 컬렉션이란 점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가격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퀄리티를 만족시키는 흔치 않은 브랜드로 국내 안경시장에 유명세를 확보하고 있는 것.

'서지오 아르마니'는 고품격의 노우즈 패드와 힙 지 부위의 메탈 경첩, 최적의 착용감을 위한 고무 팁 등은 그 어떤 까다로운 소비자라도 만족하는 컬렉션으로 소문나 있다. 타이거 인터내셔널의 한 관계자는 "자사의 안경테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싸구려가 아닌 가격과 품질, 모든 면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며 "곧 이르면 시일 내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메탈 신상 150여 신제품이 출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2)418-6878





어 느 곳 에 서 도
눈 의 보 호 는
정밀하게

SEIKO UVF

UV와 Blue light를 차단하여
눈을 보호하는 안경렌즈

- UV 100% 차단
- 420nm에서 Blue Light 약 80% 차단
- 누진렌즈 / 단초점 렌즈 가능

SEIKO

PRECISION FOR VISION



최상의 편안함... 눈 혹사하는 30~40대 사로잡다!

칼자이스비전코리아, 내면 아토릭 디자인과 조절피로 획기적 감소시키는 '디지털 에너지자이즘' 개발... 인체의 목과 자세까지 교정 효과

자이스 디지털 에너지자이즘 렌즈의 출시로 업그레이드된 연령대별 추천 고객		
단초점 에너지자이즘 렌즈	디지털 에너지자이즘 렌즈	누진 에너지자이즘 렌즈
20대~30대 초	30대~40대 초	40대 이상
- 주요 독서 거리가 짧은 고객 : 28~35cm - 스마트폰의 사용이 집중적인 고객 - 대학생, 직장인 초년생 등	- 다양한 크기와 발기의 디지털 기기를 집중적인 사용하는 고객 - 오후에 눈의 피로도가 쉽게 느껴지는 고객 -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고객	- 누진 렌즈를 처음 착용하는 고객 - 독서와 디지털 기기 사용을 같이하는 고객 - 콘택트렌즈 착용에서 누진 렌즈 착용 전환을 고려하는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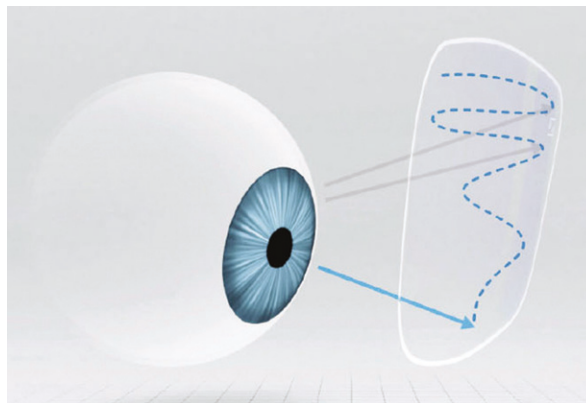
칼자이스비전코리아(주)(대표 최익준)에서 2018년 첫 번째 신제품으로 'ZEISS EngineMe Digital Spectacle Lenses'를 선보였다. 이 신개발 렌즈는 지난해 출시한 콘택트렌즈 사용자를 위한 렌즈 에너지자이즘이라는 다른 고객대를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이다. 20~30대 초반을 위한 단초점 에너지자이즘과 40대 이상이 대상층 누진 에너지자이즘에 이어 30~40대 초반의 즉 디지털 기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오후에 눈의 피로를 느끼는 고객을 위해 출시한 '디지털 에너지자이즘'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렌즈로 에너지자이즘의 라인업을 최종 완성시켰다.

자이스의 관계자는 "디지털 에너지자이즘 렌즈는 시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안경 착용을 꺼리는 콘택트렌즈 착용자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은 일반안경 착용자 모두에게 쾌적한 시야를 제공하는 내면 아토릭 디자인으로 수차를 줄여 매우 편안하다"며 "또한 이번 신제품은 30~40대 초반에 적합한 0.65D의 가입도를 근육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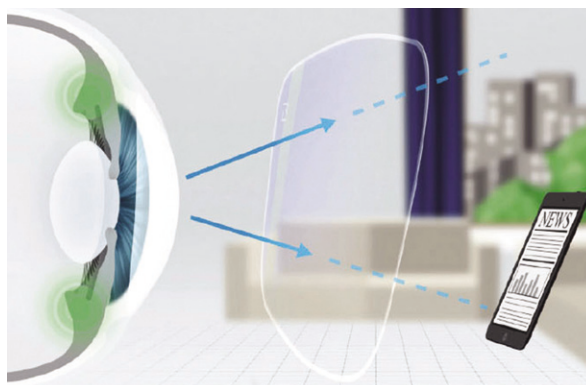
추가해 모든 거리에서 선명하고 편안한 시야를 제공해 목과 머리의 자연스러운 자세까지 잡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첨단 기술력으로 생산되는 디지털 에너지자이즘은 30~40대 초반의 고객들에게 크게 주목받는 선택된 렌즈이다"고 덧붙였다.

문의 02)2252-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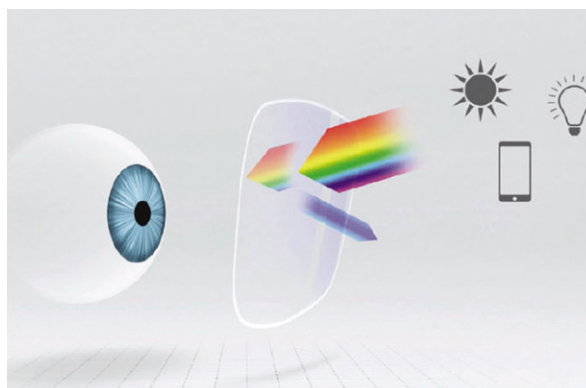
● 에너지자이즘 디자인

- 내면 아토릭 디자인으로 인한 수차제어
- 안경렌즈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설계
- 콘택트렌즈 착용자도 부드러운 시선 이동



● 디지털 인사이트 테크놀로지

- 30~40대에게 가입도(0.65D)로 조절피로 감소
- 디지털 기기 사용에 최적화된 거리 설정



● 듀라비전 블루프로텍 코팅

- 유해 블루라이트의 선별차단으로 눈부심 완화
- 이로운 블루라이트 투과로 생체 리듬감 유지
- 집중력과 능률성 유지에 도움

오늘도 수고한 내 눈을 위해 편안함을 즐기는 시간

자이스 에너자이즈미 안경 렌즈
ZEISS EnergizeMe Spectacle Lenses

30~40대 전용
에너자이즈미
디지털 렌즈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빈번한 현대인을 위한 에너자이즈미 시리즈
콘택트렌즈 착용자에게 적극 추천

에너자이즈미 단초점 독서 거리가 짧고 스마트폰 사용이 잦은 고객

에너자이즈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오후에 눈이 쉽게 피로한 고객

에너자이즈미 누진 누진 렌즈를 처음 착용하는 고객

www.zeiss.co.kr/vision

[f @zeissvisionkorea](https://www.facebook.com/zeissvisionkorea)

ZEISS

Anniversary ceremony for UNICOS Building !

“40만원”

(무이자 36개월 VAT 포함)

에 만나 보세요.

UNIT & TABLE / URK-700 / UDR-800 / ULC-800S (24인치, 무편광) / 렌즈셋트(고급형)(검안경 58.62.66 포함)

검안 장비 풀셋트에 렌즈셋트를 한번에 구입



30대

2017년 10월 15일 ~

The Fast Wireless Network System

